

# 물의 상생 정신 표현

### 원주 성불유치원 '119소방동요대회' 으뜸상 수상



성불유치원 원주 아이들이 119소방동요대회에서 공연을 하고 있다.

강원도 원주시에 위치한 조계종 성불원 성불유치원(원장 현각)이 9월 7일 '강원도 119소방동요대회'에서 대상을 받아 화제다. 그것도 종교색을 띠어서는 안되는 소방안전 캠페인을 목적으로 한 정부기관 주최 행사에서 불교사상을 절묘하게 집약시켜 갈채를 받았다.

소방동요대회는 어린이 소방안전교육 방법의 다양화와 효과 증진을 목적으로 매년 개최되는 행사로, 소방방재청이 주최하고 각 시·도 소방서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며, 시·도 예선을 거쳐 본선대회가 치러진다.

성불유치원이 이번 대회에서 원주시

### 연꽃 퍼포먼스 인기 강한 메시지 인상적

대표로 참가, 소방동요인 '생명의 물'을 불러 강원도내 유아부 10개 팀, 초등부 10개 팀 등 20개 참가 팀 가운데 대상을 받았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 성불유치원은 원주 아이들이 무대에 등장하면서 합창 반배와 함께 '생물'을 외치며 인사를 한 뒤, 공연 중 연꽃 장식을 한 컷들을 들고 노래를 불러 박수갈채를 받았다.

대회 특성상 '종교적인 내용은 금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오히려 성불유치원은 소방동요인 '생명의 물'과 불교의 '자비와 상생' 정신을 상징하는 연꽃을 접목시킴으로써 심사위원들로부터 '생명의 물에서 피어나는 연꽃을 상징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생명과 안전의식 고취의 강한 메시지를 주었다'는 평가와 함께 높은 점수를 받았다.

성불유치원의 119소방동요대회 참가는 처음부터 의도된 것은 아니었다. 아이들에게 불심을 키워주고 협동심을 길러주기 위한 프로그램을 구성하다 우연히 소방경연대회가 열린다는 얘기를 듣고는 대회참가만으로도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데뷔의 성과를 거둔 것이다.

성불유치원 원장 현각 스님은 "강원도 지역에 100여 개가 넘는 유치원이 있는데, 불교유치원이 이들 유치원을 대표해 전국 대회에 나간다는 것만으로도 어린이 포교와 불교이미지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26명의 성불유치원 원아들은 강원도 대표로 10월 21일 울산KBS방송국에서 열리는 '제7회 전국119소방경연대회'에 참가하게 된다.

성불유치원은 이 기회에 아예 성불원 산하의 복지관과 어린이집 등지에서도 공연을 하고, 반응이 좋을 경우 다른 복지시설과 유치원·어린이집 등에서도 공연을 가질 예정이다.

이은비 기자 reny@buddhapia.com

# 자비심으로 어린 생명에 희망을

### 영남불교대 경산도량 난치병 돕기 음악제

경북 경산 남천동지에서는 '꺼져가는 어린 생명에 희망을 주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지향하며 나 자신의 자비심을 일깨우는 행사'가 9월 10일 마련됐다.

영남불교대학 경산도량(주지 대륜)이 '난치병 어린이 돕기 참 좋은 가을음악제'를 봉행한 것(사진). 지난해 결식아동돕기에 이어 2회째 개최하는 음악제는 2000여 경산 시민들이 모이는 대성황을 이뤘다.

오후 7시부터 열린 음악제는 MBC 장인환 아나운서의 사회로 1부를 시작하고 TBC 이도현 아나운서의 사회로 2부의 막을 내리는 화합의 무대로 꾸며졌다.

첫 무대는 한복을 곱게 차려 입은 영남불교대학 칠곡도량 단소반 어린이들이 장식했다. 이어지는 무대는 영남불교대학 사물놀이 연구회의 난타 공연. 프로에 가까운 역량을 발휘해 음악제의 분위기를 띄웠고, 영남불교대학 문화관(관장 박항관)에서 선보인 아리랑 수건춤은 엄마와 딸이 함께 나와 선보인 따뜻한 무대였다.

그 외 대학생들의 재즈댄스, 가톨릭가 중창단과 경산도량 금강합창단, 남성중창단, 국악 관현악단의 공연이 이어졌다.

영남불교대학 경산도량은 최대한 많은 수익금을 난치병 어린이 돕기에 전달하기



위해 외부 프로 가수들의 초청을 자제하면서 최대한 불자들의 봉사로 음악제를 준비했다. 그러나 어느 음악제보다도 풍성하고 화려한 무대를 연출했다는 평이다.

특히 음악제를 앞두고 펼쳐진 회주 우학 스님의 작품전과 경산병원의 무료건강검진, 컷집시연회, 무료 가훈 써 주기, 페이스 페인팅, 수지침 등의 다양한 행사는 좋은 반응을 보였다.

배지선 기자

### 두송복지관 10주년 기념식

사회복지법인 '늘기쁜 마음'이 운영하는 두송종합복지관(관장 지현)이 9월 9일 개관 10주년 기념식을 봉행했다.

송광사 방장 보성 스님, 부산불교사회복지관협의회 회장 혜종 스님, 박재영 사회구청장, 이해수 부산시의원을 비롯 1천 여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개관 10주년 기념식은 1부 기념식과 2부 문화행사로 나눠 진행됐다.

국내 사회복지분야 최초로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한 두송종합복지관은 이날 10년 동안 복지관 활동에 적극 동참해온 자원봉사자와 후원자, 임직원들에게 감사패와 표창패 등을 전달했다.

관장 지현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10년 동안 함께 해온 자원봉사자, 후원자, 직원들에게 감사하며 더욱 더 정성을 다해 복지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 기자재 이용 불교강좌 인기



청주 관음사(주지 현진)가 9월 6일 개설한 불교교양대학이 다양한 기자재를 이용한 교육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관음사 불교교양대학은 3개월 과정으로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 각각 기초 교리와 금강경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100여명의 신도가 수강하고 있다(사진).

교육과정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멀티미디어 영상 시설을 이용한 강의. 딱딱해지기 쉬운 경전 공부를 다양한 영상으로 쉽게 풀어 내 수강생들의 학구열을 자극하고 있다.

관음사 주지 현진 스님은 "신도들이 쉽게 불교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좀 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청주 제일의 불교대학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혜철 대전 총복지시장

### 대전 호국약천사 교육관 건립



대전 유성 자운대 내 의무부대 법당인 호국약천사는 9월 10일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 일면 스님, 건립위원장 요명 스님(동학

사 주지), 운봉 스님(대전사암연합회장), 군군간호사관학교장 이재순 준장과 군장병 등 사부대중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관 건립 및 법당 확장불사 낙성식(사진)을 봉행했다.

이번에 건립된 호국약천사 교육관은 60여 평 규모로, 법당이 협소해 시행에 불편을 겪었던 의무부대 장병과 교육생, 간호생도, 병원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회는 총장직역 스님들이 돌아가며 맡게 된다.

군종특별교구장 일면 스님은 "호국약천사가 최고의 부대법당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혜철 대전 총복지시장

### 대원정사 6m 지장대불 조성



양주 대원정사(주지 해린)가 대웅전과 약사전, 지장대불을 새로 조성하고 9월 4일 4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이전법회를 봉행했다(사진).

특히 이날 모습을 드러낸 지장대불은 6m 규모의 석불로 지장도량으로서의 대원정사 이미지를 확고히 하게 된다. 이에따라 대원정사는 지장대불 조성을 계기로 참배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할 계획이다.

대원정사는 불우학생에게 장학금을 후원하고 지역 어르신 경로잔치를 여는 등 활발한 지역포교 활동을 벌여왔다. 주지 해린 스님은 "불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편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도량으로 가꿔나가겠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 법주사 대웅보전 4년만에 새모습

### 10월7일 낙성법회, 삼존불 복원불사도 추진

법주사 대웅보전이 완전해체돼 복원에 들어간 지 4년 만에 새 모습을 드러냈다.

보는 법주사(주지 도공)는 10월 7일 오후 1시 대웅보전 해체보수 낙성 대법회 및 이를 기념하는 보살계 수계법회를 봉행한다.

법주사 대웅보전(보물 915호)은 무량사 극락전, 화엄사 각황전과 함께 우리나라 3대 불전 중 하나로, 신라 진흥왕 14년에 창건돼 조선 인조2년에 벽암대사가 증장한 목조 2층 170평 규모의 웅장한 법당이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안전에 문제가 있어 해체복원불사에 들어갔다.

대웅보전 특설무대에서 펼쳐질 낙성대법회는 이날 낮 12시 식전행사인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오후 1시 낙성대법회와 식후

행사로 진행된다. 이어 오후 2시 30분부터는 대웅보전 낙성식 기념 보살계 수계식이 진행되며, 오후 7시에는 낙성식 축하 10만 등 점등식도 열린다.

한편 법주사는 대웅보전 낙성과 함께 대웅보전내 삼존부처님(비로자나불, 노사나불, 석가모니불) 복원불사도 추진한다. 삼존부처님 복원불사는 개금 및 복장(다리나경, 불경, 법주사 소장 경관 인경본 등) 봉안 불사로 진행된다.

법주사 주지 도공 스님은 "대웅보전 복원 불사와 삼존부처님 복원불사는 마땅히 해야 할 부처님의 일"이라며 "불사가 원만히 성취되도록 다함께 정성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 '우리 아이에게 무얼 먹일까?'

### 대구 룸비니 유치원 선재 스님 사찰요리 특강



"음식은 성품을 만들어 줍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것을 먹여야 하는가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9월 12일 대구 은적사 부설 룸비니 유치원 대강당에는 선재 스님(선재사찰음식문화 연구원장)의 사찰요리특강이 펼쳐졌다(사

진). '우리아이들 먹거리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특강에는 약 150여 명의 학부모와 신도, 지역민들이 모였다.

스님의 한마디를 놓칠새라 수첩에 빼곡히 메모를 하고 있는 학부모들의 얼굴에는 긴장의 빛이 역력하다.

스님은 생체리듬에 맞춰 먹을 것, 자연에 거스르지 말고 계절음식을 먹을 것, 골고루 먹을 것을 강조했다. 또, 의복과 마음가짐을 갖춘 여법한 식습관을 길러줄 것도 당부했다. 음식을 만드는 사람의 자각부터 음식의 효능까지 조목조목 설명한 선재스님의 사찰요리 특강은 연법과 어린이를 위한 두 부각별 실습까지 3시간 동안 이어졌다.

배지선 기자

# 圓 大韓佛教曹溪宗 總務院長 仁谷堂 法長 大宗師 宗團葬 寂

한국불교와 중단발전을 위해 한 생을 다하신 큰스님의 원적을 애도하며 부디 극락왕생하시어 못다 이룬 원을 다하시길 기원드립니다.

## 三角山 道 誥 寺

주지 선묵 혜자

사부대중 일동

서울 강북구 우이동 264 / 전화 02)993-3161~3